

이승준 02) 2009-7088  
leesj@leading.co.kr

7일 뉴욕증시는 예상치 보다 크게 악화된 고용지표와 기업실적 우려로 인하여 급락 마감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45.40p(2.72%) 떨어진 8,769.70에 장을 마감하며 지난 12월 1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.

S&P500 지수는 전일대비 28.05p(3.00%) 하락한 906.65에 장을 마감.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53.32p(3.23%) 하락한 1,599.06을 기록.

ADP전미고용보고서는 12월 민간부문 고용이 69만 3천명이 감소 했다고 발표하여 월가 예상치인 50만명 감소를 크게 상회.

이는 오는 9일 발표되는 12월 비농업부문 고용 감소 규모가 7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악화된 고용여건을 재확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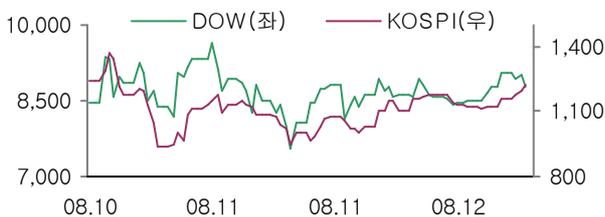
인텔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와 기업들의 재고축소 영향으로 지난 4분기 매출이 기대치보다 23% 가량 줄어든 82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.

알코아는 생산량 감소와 함께 전체 인력의 13%에 해당하는 13,5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 밝히며 이날 주가가 10% 이상 하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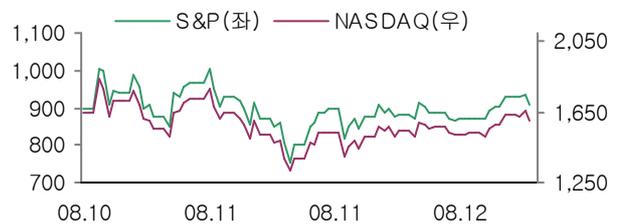
오펜하이머의 메리디트 휘트니는 지난 4분기 2조3천억달러에 이르는 MBA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인해 미국 은행들은 신규 자본을 조달해야 할 것 이라 언급하여 은행주들이 악세를 기록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증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769.70	-2.72	-0.08	3.56	-1.84	-7.17	-30.34
S&P(좌)	906.65	-3.00	0.38	4.43	-0.34	-8.99	-34.78
NASDAQ(우)	1,599.06	-3.23	1.40	4.86	1.74	-8.88	-34.48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\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  
\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\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